

익산시, 확진자 2명 추가

자가격리 조치·방문지 소독 완료... 추가 접촉자 파악 중 밀집장소 방문 자제·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당부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밀집 장소 방문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명란 보건소장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발생 현황과 접촉자 여부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발생한 익산 21번(전북 181번) 확진자는 지난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주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족차량을 이용하여 다녀왔다. 이후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전주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였으며, 오후 2시 50분부터 자정까지 직장(2명)에서 근무했다. 18일 자정부터 당일 오전 2시 30분까지 시장골목 집원광대(2명)를 지인 2명과 함께 방문하고 4시 50분까지 인근 음식점에 지인 3명과 함께 방문했다. 이후 당일 오전부터 발열증상이 나타나 오후 2시 원광대학교 선별진료소 검사를 통해



한명란 익산시 보건소장이 19일 브리핑을 열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후 11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익산 22번(전북 182번) 확진자는 16일 오후 5시부터 6시 20분까지 00수리점을 방문하고 그 외에는 자택에 머

물렀으며, 1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렌트카를 이용 익산 21번 확진자와 동행하여 진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했다. 18일 오후 11시 익산 21번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아 19일 오전 5시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는 21번, 22번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자택 및 방문지 CCTV 확인 및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다. 현재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 대한 소독을 마무리했으며 휴대전화와 GPS, 카드사용 내역을 통해 추가 접촉자들도 파악 중이다.

익산시는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을 강조하며 타지역 방문과 외부인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는 겨울철 실내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무방비적인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상돼 방역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추가적으로 산발적인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내년 5월 도민체육대회 익산서 열린다

성공개최 위해 대회 준비 돌입

내년에 실시되는 제58회 전라북도민 체육대회가 익산에서 15년 만에 개최된다. 시는 19일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에 이어 열리는 대규모 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천년순결 익산에서! 하나되는 전라북도!’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전북도민 체육대회는 내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개·폐회식이 열리는 익산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육상 등 38개 종목(정식 37, 시범 1)이 38개 경기

장에서 펼쳐지며 5만여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시는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위해 문화·경제·안전·참여를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을 위해 각 단계별·분야별로 정기·수시 보고회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익산시 체육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대회 기간 선수들과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경기장 주변과 도로 가로환경정비, 청결운동 시민 캠페인 등 전개할 계획이며 주요 시가지와

경기장 진입로에 꽃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민체전을 만들기 위하여 시내 각종 체육, 문화 예술 행사 시 현장홍보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SNS 이벤트, 홍보시설물 설치와 더불어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시민들과 함께 꼼꼼히 준비한다.

특히 체전 기간에 지역에 많은 선수·임원들과 관람객이 방문할 예정인 만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시민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계획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시행

군산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급 불안 및 가격 변동폭이 큰 노지 원예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전복도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

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시기는 해당 품목에 따라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이번 접수 품목은 양파, 마늘로 오는 12월 11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원 가능한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 농지에 직접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군산원예농협과 출하양정을 맺고 출하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300평)~1만㎡(3,000평)이며 사업 신청은 군산원예농협과 출하계약을 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대, 군산대 링크플러스 사업단, 군산시지동차부품협회, 군산시 청년들이 주관하고 군산시에서 후원한 제2회 군산 제조산업 스타트업 포럼'이 지난 17일 군산 에이본 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군산대, 제조산업 스타트업 포럼 성료

군산대학교(총장 광병선), 군산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단장 김영철), 군산시지동차부품협회(회장 신현태), 군산시 청년플(센터장 안태욱)이 주관하고 군산시(시장 강임준)에서 후원한 제2회 군산 제조산업 스타트업 포럼'이 지난 17일 군산 에이본 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달 5일 개최된 제1회 포럼에 이어 진행된 이 포럼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고찰과 방향성 모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동차부품 제조기업 및 배터리 관련 장비를 희망하는 청년, 대학생들이 포럼에 다수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김영철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군산시의 노력”을 강조했고 이어 한국전지연구조합 김유태 수석연구원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재제조 기술 및 시장 전망”에 대해, (주)성일 하이텍 선우 정호 전무이사가 “사용 후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기술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전기 자동차 시장현황 및 배터리 재활용 기술,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배터리 산업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 다음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새만금에는 세계 최대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대규모 ESS 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참석자들은 군산국가산업단지과 새만금을 전기차 재용도(재사용, 재활용 등) 산업 중심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포럼에 참석한 주식회사 경일 김대섭 대표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지만 스타트업 포럼 같은 자리가 많이 마련되어 논의가 활발하게 개진되고, 정부 부처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서 사업 진출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영성 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장은 “기술창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주축이 되어 유효성있는 논의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기자

화목보일러 화재 원인 1위 ‘부주의’

익산소방서, 안전대책 추진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내년 2월까지 화목보일러 맞춤형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해 화재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들의 재산·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익산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모두 43건으로 인명피해 2명(부상), 재산피해 3억9,600만 원이 발생했다.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취급 부주의가 38건(88%), 전기·기계적 요인 4건, 기타 1건으로 부주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익산소방서는 내년 2월까지 화목보일러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확립을 목표로 ▲비대면 화재예방 자율 안전점검 ▲화목보일러 안전 매뉴얼 보급 ▲화목보일러 안전사용 매체(신문, 방송, SNS) 활용 집중 홍보 ▲코로나19 언택트(untact) 소방안전교육 등을 본격 추진한다.

전미희 서장은 “화목보일러 사용가구는 설치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잘 숙지해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농림어업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공리에 마무리 한 군산시는 오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실시되는 ‘2020 농림어업총조사’의 시민 참여 독려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농림어업총조사’란 농림어가의 규모, 인구의 분포, 경영형태 및 지역별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농림어업 관련 정책에 기초가 되는 국가 통계조사다. 전국 모든 농림어가와 행정리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며,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조사와 방문 면접조사가 병행 실시된다.

인터넷 조사는 오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9일간 실시되고, 인터넷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에 한해 방문 면접조사가 오는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다.

농림어업총조사를 위해 11월 중 조사대상인 농림어가에 우편으로 참여번호가 발송될 예정으로, 이를 이용해 인터넷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군산=한영봉기자

체납 지방세 징수 전력

군산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 등을 납부해주시는 납세자의 조세형량 도모와 연도말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2020년 하반기 지방세입(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체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정세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액을 편리하게 확인·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안내’ 팸플릿을 이퍼트란지 및 관공사에 배부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진행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대표차 포함)에 대해서는 군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일제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의 공공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